

실종예방을 위한 "지문 등 사전등록제"
등록하고 안심하세요.

2016년에도 "찾아가는 현장등록"을 실시합니다



사전등록제란?

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되었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,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,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현재 270만명이 등록하였습니다.



등록하세요!

누구를 등록하나요?

18세 미만 아동,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인, 치매질환자가 등록 대상입니다.

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?

- 보호자가 인터넷(안전Dream, www.safe182.go.kr)으로 직접 등록
- 경찰관서에 "아동등"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하는 방문 등록
- 어린이집, 유치원 등 현장에 "찾아가는 현장등록"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드림(www.safe182.go.kr)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.

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?

등록한 정보는 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자유롭게 수정, 폐기할 수 있습니다.



이렇게 신청하세요!

"찾아가는 단체등록"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현재 경찰청에서 사업자를 선정 중이며, 2016년 5월26일부터 전국에서 단체 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어린이집 등 원장님께 "꼭 우리도 단체등록에 참여해요."라고 말씀해 주시고, 등록 신청서를 작성, 제출해 주시면 경찰청에서 방문해 등록해 드립니다.



경찰청



182

www.safe182.go.kr